

# MB 국책사업 뒤집고 폐기하고... 지역 갈등만 키운다

### 과학벨트·LH 이전 등 균형발전 보다 전략적 대응 민주 손학규 대표 "국민 신뢰 잃고 국론 분열 조장"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당시 자신이 내건 대표 공약을 뒤집고 대규모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데 객관성·타당성을 결여하면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각 지역에 대형 국책사업들을 약속한 뒤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번복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정치적인 약속'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각 지역에 대형 국책사업들을 약속한 뒤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번복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정치적인 약속'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안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집권 후 돌변했다. 충청 출신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기용해 세종시를 교육 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건설하는 수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충청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및 친박계 등 당 내부 저항에 직면하면서 이 수정안은 결국 부결돼 1년 넘게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논란은 수그러들었다.  
이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로 막대한 행정력과 국가재정을 낭비한 것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단기간에 치유될 수 없는 생채기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07년 8월 공약으로 내건 동남권 신공항 건설안은 백지화됐다. 부산(가덕도 지리)과 대구·경북(경남

밀양 지리)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붙어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정부는 결국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대신 아예 공약을 폐기한 것이다. 과도한 시설투자 우선의 공약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공약으로 내걸고 입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역 간 갈등만 양산했다.  
충청권 조성을 약속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지난해 통과된 특별법에서 충청권 입지 조항을 삭제하면서 전국 지자체가 뛰어들어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다. 충청지역에서의 불만은 확산됐으나 건국 이래 최대의 기초과학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광주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활동에 나서면서 큰 후유증을 예고했다.  
그러나 결국 최종입지가 충청권인 대전 대덕특구로 결정되면서 수 개월간 과학벨트 유치에 전력을 기울인 광주 등이 원천무효라며 반발하는 등 '공약 뒤집기'로 인한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공정심사 촉구 단식투쟁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정부가 16일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로 대전 대덕지구로 결정하자 광주시의회 의정단과 상임위원단 등이 시의회 1층 로비에서 입지선정 무효화를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과학벨트 대전 선정 무효”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된 LH 본사 일괄 이전 부지 결정에서 탈락한 전북의 반발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홍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책사업의 입지결정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과 국력낭비를 줄이기 위해 입지선정을 포함한 사업의 추진일정 등을 명확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며 “선정과정에서도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 MB정부 주요 대선 공약·국책사업 갈등 사례

사업	경과	결과
세종시 원안 유지	정부세종시수정안(행정부처 이전 대신 교육 과학중심 경제도시 조성) 추진, 충청권 강력 반발	수정안 국회 부결, 원안 추진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항 입지놓고 부산과 대구·경북 과열 경쟁	백지화 지역반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특별법에서 충청권 입지 삭제 전국 지자체 후보지 신청 및 과열경쟁	심사 공정성 논란 속 대전 대덕 입지 선정 광주·경북 등 원천 무효 주장
LH 본사이전	토지공사는 전주, 주택공사는 진주로 이전하기로했으나 이들 공기업이 통합되면서 일괄 이전 부지 물색	진주로 일괄 이전 호남 출대론 속 전북 강력 반발

면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우리는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더 나아가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정

박 장관은 국책사업 약속을 뒤집어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국민과 한 약속을 무겁게 알고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길 요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과학벨트 등 국책사업 책임

#### 정창수 국토부 1차관 사의

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정창수 차관이 일신상의 사유로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4시 과천 청사에서 정차관의 이임식을 했다.

일각에서는 정 차관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 대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지방이전을 주도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대규모 국책 사업을 맡은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 사임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시-민주당 미묘한 신경전

### 당-“당론 무시 MB정부 노림수에 들러리” 시-“유치 도움주기보다 고춧가루 뿌렸다”

정부가 16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를 대전 대덕지구로 유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민주당과 광주시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과학벨트 입지의 대전 대덕 확정과 관련, “국론분열, 국가 리더십 실종, 삼류 장사꾼 정치, 조삼모사 국정 운영” 등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과학벨트 유치와 관련, 이명박 정부의 노림수에 당한 것 아니냐는 아

쉬움도 나타내고 있다.  
과학벨트 일부를 대구·경북에 유치시키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전략에 결과적으로 광주시가 넘어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당론마저 무시하고 광주시가 과학벨트 유치에 나선 결과, 5개의 연구단을 배정받는데 그친 것은 사실상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은 결과’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학벨트 유치 초기 단계에서 이명박 정부의 노림수에 대한 우려를 광주시에 전했다”며 “지방자치단체로서 국책사업에 유

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전략적인 노림수에 들러리를 서게 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호남 양보론’을 내세우며 광주시의 과학벨트 유치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고춧가루’를 뿌려왔으며 ‘들러리’ 주장에 대해 분개하는 모습이다.  
특히, 광주시 일각에서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김영진 의원과 박주선 의원 등 일부가 제외하고는 대부분 광주시의 과학벨트 유치를 사실상 방관해 왔으며 오히려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시 ‘본원유치 설득’ 첩보전 눈물겨웠다

광주시가 과학벨트 본원 유치를 위해 눈물겨운 호소와 첩보전을 벌였다는 전라북도 구수현 기자가 보도했다.  
16일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과학벨트의 최종 선정을 앞두고 평가위원을 무려 3시간이나 기다린 끝에 만나 광주시의 과학벨트 본원 유치의 당위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과학벨트 평가위원들이 거주하는 대전, 안양, 서울 등 충청과 수도권 일원을 하루 동안에 돌며 광주시의 정성평가 자료를 직접 전해주고 공정한 심사를 당부했다.  
강계두 부시장과 장인균 정무특보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과부, 국회 등 서울 지역 언론사를 직접 방문, 과학벨트의 호남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하고 브리핑하

는 등 총력전을 전개했다.  
특히, 광주시는 최종 심사를 앞두고 10대 후보지 가운데 유일하게 30쪽 짜리 정성평가 책자를 만들어 전달하며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려냈다.  
이같은 노력으로 정부와 과학벨트 평가위원회 사이에서는 광주시의 유치 전략이 가장 차별하고 논리적이며 집단 행동에 나서서 타 지역과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특히, 호남권 과학벨트 공동유치위원장인 김영진 의원과 광주시 서울사무소 직원들도 함께 팀을 이뤄 첩보전을 벌였다는 작전을 펼치며 이주호 교육과학부 장관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캐네이션과 함께 원터치 울트라이지를 준비하세요  
저혈당도 정확하게 측정하고 컴퓨터로 관리하는 원터치 울트라이지 - 당뇨를 걱정하시는 부모님께 스마트한 혈당관리로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원터치 울트라이지 핑크 캐네이션 이벤트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도 챙기고, 힐리언스 상품권도 챙기세요!  
기간: 2011년 4월 18일 ~ 2011년 5월 20일(33일간)

1 원터치 울트라이지 핑크를 구매하고 고객카드를 작성하시면 5분을 주점하여 2인용반 힐리언스 당뇨산책 참석권을 드립니다  
2 원터치 울트라이지 핑크 세트를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께 뉴트리지나 설탕볼을 드립니다

음모처 및 관련 문의 원터치 고객 서비스센터 080-555-4499 / www.onetouch.co.kr / 한국온센앤드센스(주) / 힐리언스 힐링의 시작

※의료기기는 의료기점에서 구매하세요